



아내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재호/한국부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외** 도요? 나만 모르게 하리는 거예요. 나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할테니까! 여자라고 해서 항상 당하고만 살 수 있나요? 아무튼 이 남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 혼인 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30대 중반의 부인이 한 말입니다. 물론 이혼은 허락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외도현장이 발각되었으니 변명할 여지가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외도, 고부간의 갈등 또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세상은 무던히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 IMF물결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부부들의... 아닙니다. 여자들의 가치관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첫째로 손꼽히는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전체의 35.5%입니다. 말하자면 내 비위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이 32.5%로 돈을 안벌어 온다는게 그 사유입니다.

세 번째가 가정폭력으로 전체의 24%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외도문제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으나 그 사이에 완전히 자리바꿈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해서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른과 함께 안 살면 된다'는 해답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외도문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만 하라'는 반응이 전체의 76%나 됩니다. 게다가 '외도를 경험한 바 있다'라고 응답한 여성들도 26%나 되고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외도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여성들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남자들만 외도해도 괜찮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여성들도 이제는 성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성이 성을 거론하면 '밝히는 여자'로 지목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한국부부문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자가 어떻게 외도한다 말이나'가 전체의 83%로 나타나지만 '여자가 외도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여성들은 전체의 94.3%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의 주장이 전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성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치관이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혼인은 아직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성의 순수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상당한 세월 동안에는 혼인제도에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젠 현실로 돌아옵니다. 남성 여러분께 간곡하게 경고합니다. “부인들의 생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월가월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제 옹고 그르다고 시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당신의 아내는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란 것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혼이란 남자들에게는 처참합니다.

이혼 전담자인 저로서는 할 말이 이것뿐입니다. 제발 곁에 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아내의 손을 잡아주세요.

당장은 이것만이 가장 현명한 처방입니다.

